



주간 통일정세

2011-46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정치

● 김정일·정은, 공군부대 시찰(11/7,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후계자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오중흡7연대 칭호를 받은 조선인민군 공군 제813군부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
- 김 위원장은 비행사들의 훈련을 지켜보고 부대 내 비행사 침실, 학습실, 혁명사적지 등을 둘러본 뒤 군인들과 기념사진을 함께 찍었으며, 김 위원장은 비행사들의 훈련에 만족감을 표시하고 이들이 영공을 지키는 것을 치하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함.
- 시찰에는 리영호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장성택 당 행정부장, 김정각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박도춘 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경옥 당중앙위 제1부부장, 황병서 당중앙위 부부장, 김명국·김원홍 당 중앙군사위원, 박재경 인민무력부 부부장, 현철해 국방위원회 국장 등이 수행했고, 리병철 공군사령관이 이들을 영접

● 김정일, 단천항 건설노동자에 '친필' 전달(11/8,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함경남도 단천항 건설 노동자들이 보낸 편지를 보고 나서 '친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
- 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일 동지께서 육해운성 일꾼과 단천항 건설돌격대원들이 올린 편지를 보고 친필을 보냈다"며 "지난달 16일 노동자들은 편지에서 김 위원장의 믿음과 사랑이 조국을 받드는 역센 뿌리가 되고 무한대한 정신력을 낳게 했다고 강조했다"고 전함.

● 北노동당, 연하기계공장 노동자 연회 개최(11/8, 조선중앙통신)

- 북한 노동당이 8일 평양을 방문중인 자강도 희천의 연하기계종합공장 노력혁신 노동자들을 위한 연회를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중앙통신은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이날 CNC 공업회에 이바지한 연하기계의 노력혁신자, 과학자, 기술자들을 위해 성대한 연회를 마련했다"며 "연회에서 최태복 당비서가 연설했고 왕재산예술단의 음악무용종합공연이 있었다"고 전함.
- 이날 연회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최영림 내각 총리, 리영호 군 총참모장 겸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김기남 당비서, 장



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박도춘·최룡해·태중수 당비서, 문경덕 평양시당 책임비서, 주구창 당 기계공업부장,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 등이 참석

● **조총련 "김정은, 김일성 모습 그대로"(11/9, 평양방송; 연합뉴스)**

-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후계자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실명을 처음으로 거론하며 김일성 주석의 모습과 그대로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북한의 대외용 라디오방송인 평양방송은 9일 일본의 조선대학교 창립 55주년 기념식 참석자들이 지난 5일 김 위원장에게 보낸 편지 전문을 전하면서 "지난 9월 정권 창건 63주년 열병식에서 본 장군님과 존경하는 김정은 대장 동지의 영상은 김일성 주석 모습 그대로였다"는 구절을 소개
- 조총련이 후계자 김정은의 실명을 거론하며 '대장 동지'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김 주석의 모습과 닮았다고 찬양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조총련 사회에서는 김정은 우상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면서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을 정당화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 **김정일, 건재 과시...양어사업소 현지지도(11/11, 조선중앙통신)**

- 사망설이 돌기도 했던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종환이 사업하는 양어사업소'를 현지지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전함.
- 김 위원장은 사업소를 돌아보고 나서 "우리나라는 양어를 대대적으로(양식)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며 "양어를 균중적 운동으로 광범히 벌여 이 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
- 그는 이어 "양어는 인민들에게 물고기를 더 많이 먹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인 만큼 먹이문제를 비롯해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제때에 원만히 해결해줘야 한다"고 덧붙임.
- 김 위원장의 이번 현지지도는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한광상 당 재정경리부 제1부부장이 수행

● **김정일, 함흥노동자 등에게 친필전달(11/12,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최근 평양을 다녀간 함경남도의 노동자들이 보낸 편지를 읽고 '친필'을 보내 격려했다고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 등 북한 매체들이 12일 보도
- 김 위원장은 지난달 중순 함남 함흥시에 있는 기업소들을 현지지도하며 해당 공장·기업소 노동자들을 평양으로 초청했고, 이들은 지난달



19~24일 평양에 머물며 은하수 10월 음악회 관람, 인민문화궁전 축하 연회 참석 등 환대를 받은 뒤 귀향 당일 김 위원장에게 감사 편지를 보냄.

● **김정일 또 양어장 시찰...이번엔 軍양어장(11/12,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인민군 제580군부대 소속 의 '엄덕성이 사 업하는 양어장'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
- 김 위원장은 이날 양어장을 돌아본 뒤 "샘물에서는 찬물을 좋아하는 물고기를, 온천에서는 더운물을 좋아하는 물고기를 기를 수 있다"며 " 샘물, 온천을 적극 이용하고 양어에 적합한 곳들을 찾아 양어장을 더 많이 건설해 물이 있는 모든 곳에 물고기떼가 옥실(득실)거리게 해야 한다"고 지적
- 김 위원장은 이어 "이곳 양어장에서 물고기 생산 계획을 수행하려면 지난 기간 경제적 효과가 실증된 칠색송어를 비롯한 냉수성 물고기 를 기르는데 선차적인(우선) 주목을 돌려야 한다"며 "어디에서나 손쉽게 할 수 있으며 실용성이 있는 양어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어 군인 들과 인민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를 먹이자"고 강조
- 김 위원장의 이번 현지 지도는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한광상 당 재정경리부 제1부부장이 수행

■ **김정일동향**

- 김정일, 조선인민군 공군 제813군부대 및 군부대의 혁명사적지 시찰(11/7, 중통)

■ **기타 (대내 정치)**

- 金民은 "咸南의 불길따라 모든 분야에서 대고조 진군을 힘있게 다 그쳐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빛내이기 위한 전투적 목표를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며 '최후돌격전' 독려(11/8, 중방)
- 최태복 의장, 11.10 만수대의사당에서 '인도네시아-조선친선의원단 대표단'(나당 따모드라 위원장)과 담화(11/10, 중통)
- 최영림 총리, 11.10~11 '단천지구광업총국 사업' 현지에서 요해(11/3, 중통·중방)



나. 경제

● 中하얼빈 관광단, 금강산 관광(11/7, 조선중앙통신)

- 중국 하얼빈(哈爾濱)에서 온 시범국제관광단이 금강산을 관광하고 7일 귀국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중앙통신은 "관광단 성원들이 구룡연, 신계사, 삼일포, 해금강 일대를 돌아보며 기묘한 봉우리와 절벽, 기암괴석 등 절경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며 "체류 기간 이들은 만경대를 방문하고 개선문, 우의탑 등을 참관했다"고 전함.
- 헤이룽장(黑龍江)성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인 진희빈을 비롯한 하얼빈-금강산 시범 국제관광단은 지난 4일 전세기편으로 방북

● FAO "北 올해 곡물수확 다소 늘어"(11/8, 미국의소리(VOA))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최근 발표한 '11월 식량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북한의 곡물 수확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8일 전함.
- 보고서는 북한에서 흉수로 문제가 있었지만 농자재 확보 상황이 나아져 곡물 수확이 조금 늘어날 것으로 예상
- 앞서 FAO는 지난달 초 '곡물전망과 식량 상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올해 곡물 수확량(도정 이후 기준)이 지난해 420만t보다 4.8% 늘어난 440만t에 이를 것으로 전망
- 한편 FAO는 세계식량계획(WFP)과 지난달 북한에서 '작황과 식량안보 조사'를 벌였고 이달 중순 구체적인 북한의 곡물 전망치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짐.

● "北, 쌀값 폭등...두 달 만에 53%↑"(11/10, 연합뉴스)

- 최근 북한 전역에서 쌀값이 폭등하면서 평양에서는 2개월 만에 50% 이상 올랐다고 대북 인권단체인 (사)좋은벗들이 운영하는 북한연구소가 10일 전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북한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소식지 '오늘의 북한소식'(428호)에서 대북소식통을 인용, "12월이 되면 1kg에 5천원을 넘지 않겠느냐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힘.
-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전국 쌀값이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해 11월 현재 농촌에서도 쌀 1kg이 3천원 이상에 거래되고 있으며 농사가 비교적 잘된 회령, 청진 등에서도 3천500~600원 정도임.
- 특히 평양은 지난 9월까지만 해도 1kg에 2천500원이었던 쌀값은 10월 3천200원, 11월 3천800원으로 올랐고, 옥수수값 역시 같은 기간 1천400원, 1천700원, 2천300원 등으로 폭등함.
- 최근 북한 내 식량가격이 급등한 것은 북한 당국의 식량수입이 늦어지고 달러 대비 북한통화의 가치가 급락한 것 등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되



고 있다고 뉴스는 전함.

● **北 "경제쇠퇴설은 낭설"...한은통계 비난(11/10, 조선중앙통신)**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0일 최근 북한 경제가 2년 연속 후퇴했다는 한국 은행의 통계를 '낭설'이라고 비난
-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무엇을 노린 경제쇠퇴설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과 남조선에서 우리 경제와 관련한 잡소리들이 나오고 있다"며 "북조선 경제가 2년째 쇠퇴하고 있다느니, 조선에 투자할 때 신중하도록 주위를 환기시키는 문건을 배포한 나라가 있다느니 하는 등 구구한 험담들이 있다"고 주장
- 이는 지난 3일 한국은행이 지난해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기상악화와 제조업 부진으로 전년보다 0.5% 감소, 2년 연속 경제성장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발표한 것을 반박한 것임.
- 중앙통신은 "최근 2년은 조선의 인민생활 향상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전례 없는 기적과 혁신이 창조된 격동적인 시기"라고 규정하고 "인민들이 풍요한 물질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확고한 토대가 마련돼 은(효과)을 내고 있다"고 주장
- 이 통신은 "이 모든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가 강력한 핵 억제력을 마련하고 그 토대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힘을 집중한 대고조시대의 위대한 산아"라며 "공화국은 앞으로도 자립경제의 잠재력과 위력을 더욱 높이 과시하면서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와 폭넓은 협력을 실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임.

● **北고려항공, 중동노선 제한...'채스민' 때문?(11/10, 연합뉴스)**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0일 최근 북한 경제가 2년 연속 후퇴했다는 한국 은행의 통계를 '낭설'이라고 비난
-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무엇을 노린 경제쇠퇴설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과 남조선에서 우리 경제와 관련한 잡소리들이 나오고 있다"며 "북조선 경제가 2년째 쇠퇴하고 있다느니, 조선에 투자할 때 신중하도록 주위를 환기시키는 문건을 배포한 나라가 있다느니 하는 등 구구한 험담들이 있다"고 주장
- 이는 지난 3일 한국은행이 지난해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기상악화와 제조업 부진으로 전년보다 0.5% 감소, 2년 연속 경제성장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발표한 것을 반박한 것임.
- 중앙통신은 "최근 2년은 조선의 인민생활 향상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전례 없는 기적과 혁신이 창조된 격동적인 시기"라고 규정하고 "인민들이 풍요한 물질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확고한 토대가 마련돼 은(효과)을 내고 있다"고 주장
- 이 통신은 "이 모든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가 강력한 핵 억제력을 마련하고 그 토대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힘을 집중한 대고조시대의 위대한 산아"라며 "공화국은 앞으로도 자립경제의 잠재력과 위력



을 더욱 높이 과시하면서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와 폭넓은 협력을 실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임.

● **러시아, 北에 식량 5만t 지원 완료(11/10, 조선중앙통신)**

- 러시아의 대북지원식량 5만t의 납입이 끝났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
- 중앙통신은 "남포항에서 기증식이 진행됐다"며 "김지석 북한 수매양정성 부상, 발레리 수히닌 주북 러시아 대사 등이 기증식에 참석했다"고 밝혔으나 지원물자의 종류나 양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 통신은 이어 "러시아가 북한에 식량을 기증한 것은 양국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 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

● **조계종, 대북 밀가루 지원 모니터(11/11, 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의하면, 대한불교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민추본)는 12-16일 북한을 방문, 지난 10월 지원한 밀가루 배분 상황을 모니터링했다고 11일 밝힘.
- 조계종은 "이번 방북은 지난 10월 밀가루 지원에 따른 모니터링 차원에서 이뤄지게 됐다"면서 "민추본 본부장 지홍 스님을 단장으로 한 방북단이 평안북도 향산군의 이동시설을 방문해 밀가루 배분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함.
- 방북단은 또 보현사 등 사찰을 방문하고 조선불교도련맹 관계자와 회담도 가질 예정이라고 뉴스는 전함.

● **민간단체 北평북 정주에 밀가루 300t 지원(11/11, 연합뉴스)**

- 민간단체인 평화대사협의회는 김일성 주석과 문선명 통일교 총재의 만남 20주년을 맞아 오는 14일 북한 평안북도 정주시 탁아소 등에 대한 지원용으로 밀가루 300t을 전달한다고 11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이 단체는 "14일 오전 김민하 공동회장 등 5명이 경의선 육로를 통해 방북해 개성 봉동역에 지원물품을 하역할 예정이고, 21~24일 정주를 방문해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라며 "지난해 '평화의 쌀 모으기 캠페인'을 통해 조성된 기금으로 물품을 마련했다"고 설명

● **北 국제사회에 나선특구 투자 '세일'(11/13, 우리민족끼리; 연합뉴스; 조선신보)**

- 북한은 최근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방송 등 대내용 매체가 아닌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나 재일동포들이 보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 등 대외용 매체를 나선 특구 홍보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조선신보는 지난달 24일 '황금의 삼각지대' 제목의 기사에서 "아시아태평양 나라들과 세계 여러 나라를 연결하는 무역중계지로서 나선지구는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조(북), 중, 러 3국이 서로 국경을 접하



는 요충지에 위치한 나선지구를 황금의 삼각지대라고 부르는 것은 우연하지 않다"고 선전

- 나선시 인민위원회 황용남 국장은 인터뷰에서 "라선자유무역지대법을 비롯해 50여개의 법과 부문별 규정을 제정 공포해 외국인 투자를 비롯한 경제무역활동에 필요한 법적 기초와 제도적 환경을 마련했다"며 "세율이 매우 낮고 경우에 따라 감세 및 면세정책을 실시한다"고 밝힘.
- 이런 언급들은 북한의 비정상적인 경제시스템 속에서 투자금의 안정성과 고세율을 걱정하는 외국인 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 개성공단 등 북한의 특구지역에서 통신·통행·통관 등이 이른바 '3통(通)'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나선 투자에 통신이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임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라고 뉴스는 전함.

● '강성대국' 앞둔 北, 핵심계층 거주 평양 특별대우(11/13, 연합뉴스)

- 내년 이른바 강성대국 선포를 앞두고 체제수호의 핵심 계층이 모여 사는 평양시에 대한 북한 당국의 '특별대우'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13일 대북 소식통 등에 따르면 북한은 평양 만수대지구에 3천 세대 규모의 고층아파트 단지과 극장, 공원을 조성하는 등 대규모 토목공사를 진행 중인데, 이는 강성대국 진입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한 선전용 성격이 강함.
- 이 때문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9월8일 후계자 김정은과 함께 공사현장을 방문해 "우리식의 새로운 거리가 시대적 미감에 맞게 건설되고 있다"며 만족감을 표시하고 건설을 독려
- 이에 따라 당과 내각은 기관별로 공사구간을 할당해 '층수 경쟁'을 유도하고 녹지 조성을 위한 외국산 고급수종을 물색하는 한편 노후화된 가로등과 터널 조명등, 내온사인 등의 교체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짐.
- 평양시민에 대한 상품공급도 최우선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북한을 다녀온 중국인 사업가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개장한 보통강백화점은 부유층 대상 수입품 전문매장으로 중국 등에서 수입한 의류, 가구, 식품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아르마니, 샤넬 등고가 명품도 포함돼 있다고 함.
- 또한 김 위원장은 러시아의 대북 식량지원(5만t)과 맞물려 8월 중순 평양 시민에게 4만t의 식량을 특별배급하고, 내각에 평양시의 식수와 난방, 전기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짐.
- 대북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체제수호 핵심계층인 평양시민을 우대해 체제 결속을 다지고 배급을 통해 시장기능을 억제함으로써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분석하고 있다고 뉴스는 전함.

● "北 식량지원 취약계층 위주로"(11/13, 연합뉴스)

-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은 영유아나 산모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지난달 17~21일 북한을 방문했던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OHCA)



- 발레리 아모스 국장은 지난 11일 영국 상원이 주최한 청문회에 참석해 직접 둘러본 북한의 식량난 실태와 방문 당시 상황 등을 자세히 소개
- 13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아모스 국장은 "북한은 매년 100만 가량의 식량이 만성적으로 부족하고 세계식량계획(WFP)과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올해 작황은 작년보다 좋은 편이지만 인구 증가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봐야 한다"고 말함.
- 그는 평양을 제외한 지역, 특히 북쪽 지역의 45%가 만성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보육원을 방문했는데 사진기를 보고 아이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영양실조가 어린이, 영아들의 정신적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
- 아모스 국장은 "정부 배급소는 카드를 보여주면 정해진 할당량을 배급하는 단순한 체계로 운영되며 현재 평균 200g을 배급하고 있다"면서 "땅콩버터처럼 고열량 고단백 식품 위주로 임산부, 영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
- 그는 "북한이 정부 배급소를 유엔에 공개한 것은 처음이었고 예전과 달리 방문을 요청하는 곳을 북한이 거부하지 않았고 우리 측의 발언도 막지 않았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인도적 지원 운영 전문가를 영입해 북한 식량문제에 도움을 주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함.

■ 기타 (대내 경제)

- '통성정화장' 건설 준공식, 11.9 전하철(내각 부총리)·황학원(도시경영상/준공사) 등 참가下 진행(11/9, 중통·중방)
- 北, 11.10 러시아 정부의 '식량 5만 지원 기증식' 남포항에서 진행(11/10, 중통·중방)

다. 군사

● 北-이란 핵·미사일 협력 대규모로 진행되는 듯(11/13, 연합뉴스)

- 북한과 이란의 핵·미사일 커넥션에 관한 새로운 정보가 13일 유력한 외교소식통에 의해 알려지면서 양국의 핵·미사일 기술협력 방식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북한과 이란이 각각 우위에 있는 미사일개발 기술과 우라늄농축 기술을 서로 주고받았다는 커넥션의 실태를 파악할 만한 실마리가 새롭게 나타난 것임.
- 우선 수백 명의 북한 기술자가 이란의 주요 핵·미사일 시설에서 일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양국 간 기술협력이 대규모로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
- 이는 파키스탄 '핵개발의 아버지'로 불리는 압둘 카디르 칸 박사를 통해 파키스탄의 핵 기술이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북한·파키스탄의 핵·미



- 사일 커넥션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뉴스는 전함.
- 이처럼 인적 교류가 대규모로 진행되다 보니 양국 정부가 조직적으로 이 협력에 관여하는 정황도 보이는데, 북한 기술자들이 조선노동당 소속의 군수공업부 산하 99호실 출신으로 파악되는 것이 그것임.
 - 외교가에서는 북측이 이란에 기술자를 보내 핵 기술을 습득하고 미사일 기술을 전수하는 작업을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북한 측 기술자들이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교대 근무를 하는 것도 이런 차원으로 분석
 - 외교가에서는 이런 긴밀한 밀착관계를 양국 간 오랜 협력의 산물로 보고 있으며, 1980년대부터 미사일을 중심으로 군사협력과 기술제휴를 해왔던 양국의 교류가 시간이 지나면서 전방위적인 기술 협력 관계로 발전했다는 추정
 - 또 폭로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는 지난해 11월 이란이 사거리가 3천Km 이상인 북한제 BM-5 미사일 19기를 확보했다는 2010년 2월24일자 미국 외교전문을 공개했으며 이와 비슷한 시기에 북한이 공개한 우라늄 농축시설을 놓고 이란의 시설과 유사하다는 의혹이 전문가 사이에서 제기된 적도 있다고 뉴스는 전함.

라. 사회·문화

● "압록강 건너 中도착 탈북자 北서 총싸 사실"(11/7, 연합뉴스)

- 북한 당국이 중국으로 탈북한 주민을 현장에서 사살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탈북난민인권연합 김용화 회장은 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난달 22일 한 탈북 남성이 양강도 해산 부근에서 압록강을 건너 중국 측 도로에 올라섰다가 북한 경비병들이 쏜 총에 맞아 숨지는 장면을 목격했다"며 "이 탈북자가 숨진 지 30여분 지나자 중국 공안들이 와서 조사했다"고 밝힘.
- 김 회장은 "북쪽에서 중국 사람을 쏠 수는 없으니 (총에 맞은 사람) 북한 사람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이 장면을 현지 가이드에게 찍으라고 했고 가이드는 휴대전화로 영상을 찍었다"고 말함.
- 북한 당국이 중국에 도착한 탈북자를 사살한 것은 이례적인 사례로 탈북자 대응이 한층 강화됐음을 보여준다고 뉴스는 전함.
- 북한은 그동안 중국으로 도망친 탈북자에게는 총을 쏘지 않았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 김정은이 공식 등장한 뒤 북중 국경지역에서 탈북자 단속을 강화하면서 탈북자 발견 시 현장에서 사살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짐.

● 北도 대입시즌...외국어·IT계열 인기 상종가(11/7, 연합뉴스)

-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0일)을 앞두고 '수능모드'에 돌입한 남한 처럼 북한 수험생들에게도 이 무렵은 대입시즌이라고 연합뉴스가 전함.



- 중학교 졸업학년인 6학년 학생들은 이즈음 남한의 수능과 비슷한 대입 예비시험을 보게 되며 또 본고사격인 대학별 본시험도 준비해야 함.
 - 대입경쟁률은 최상위권 대학의 경우 30대 1이 넘는 정도로 치열하며, 학과별로는 외국어학과, IT계열의 인기가 급상승하는 추세
 - 남한처럼 교육열도 상당히 부유층은 자녀들에게 이른바 고액과외를 시키는가 하면 부정입학 사례도 공공연히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짐.
 - (사)평화문제연구소는 최근 각계 북한전문가 10여 명의 도움을 받아 7일 내놓은 '꼭 알아야 할 통일·북한 110가지'를 통해 이 같은 북한의 대입제도와 교육열 등을 이례적으로 상세히 소개
 - 이 책에 따르면 북한의 대입제도는 과거 추천방식이었는데 1991년부터 부정입학을 막기 위해 남한의 수능과 유사한 '대학추천을 위한 예비시험' 제도를 도입
 - 시(구역)·군의 교육성이 주관하는 예비시험은 보통 10~11월 시행되며 중학교 졸업생 전원이 참가
 - 전반적으로 볼 때 내신성적, 예비시험, 대학별고사 등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남한과 대동소이하나 응시대학은 예비시험 성적과 희망대학을 고려해 교육당국이 결정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음.
 - 북한은 전면 무상교육을 주장하는 사회주의국가이지만 최근 들어서는 사교육이 점차 공교육을 대체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를 계기로 교과서, 학용품 등 필요한 교육물자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자 학교당국이 공교육비 부담을 학부모에게 전가하는 현상이 심화됐기 때문이라고 뉴스는 전함.
 - 부정입학은 주로 대학학장이나 간부들에 의한 입학정원 조정을 통해 이뤄지며, 교원 등이 청탁받은 학생의 부정행위를 눈감아주거나 합격시킨 뒤 시험답안을 수정하는 방법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짐.
- **北·中, 합작 영화 '아리랑' 제작(11/7, 북청망(北靑網))**
- 북한과 중국이 합작 영화 '아리랑' 제작에 나섰다라고 중국 매체 북청망(北靑網)이 7일 보도
 - 이 매체는 류둥(劉冬)과 리명난(李夢南) 등 영화 아리랑에 출연하는 중국 배우들이 최근 평양에 도착, 본격적인 촬영에 들어갔다고 전함.
 - 이 매체는 북한이 김일성 주석의 90회 생일을 기념해 2002년부터 연인원 10만 명이 출연하는 집단 체조 아리랑을 공연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이 영화는 양국 무용계의 문화 교류 과정 중 생긴 에피소드를 다루게 된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음.
 - 한편 이 영화는 올해 연말 제작을 마친 뒤 내년 상반기 상영될 예정이며, 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제작되는 이 영화는 북한의 김현철과 중국 감독 시얼자타가 공동으로 연출을 맡는 등 국 최고의 제작진과 배우들이 출연하는 것으로 알려짐.



- **北화가 베이징서 개인전...해외전시 이례적(11/7, 조선중앙통신)**
 - 북한 화가 김성민의 개인 전시회가 6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
 - 북한 최고의 미술가 조직인 만수대창작사 부사장 겸 조선미술가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성민은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때 영결식용 초상화를 그리기도 했으며 이후 최고 영예인 '김일성상'을 수상하기도 함.
 - 중앙통신은 "노력영웅, 인민예술가인 김성민이 만든 '90년대 불사조들' '조종천선의 노래' 등 20여점의 작품이 전시회에 전시됐다"며 "개막식에는 친흥치 베이징국제예술박람회 조직위원회 주임과 완지웬 중국 대외문화집단공사 부총경리 등이 참석했다"고 전함.

- **北, 카다피 피살 후 외국인 입출국도 통제(11/8,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평양거주 외국인의 제3국 방문까지 통제하며 리비아 사태와 관련된 외부정보 차단을 강화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8일 전함.
 - 평양과 중국을 오가며 소규모 합영기업을 운영하는 러시아 국적의 이모씨는 이 방송에 "최근 중국을 방문하려는데 북한 당국이 수속과정에서 '왜 중국에 가며 언제 돌아올 것인지, 중국 이외 다른 국가를 방문할 것인지'를 세세히 따져 물었다"며 "중국을 제외한 제3국을 방문하면 북한에 재입국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도 받았다"고 말함.
 - 북한 주민 장모씨는 이 방송에 "북한 내에 거주하는 외국 공관원과 그 가족이 평양을 벗어날 때는 외무성의 사전허가가 필요하고, 이후에도 감시요원의 통제 하에 이동할 수 있다"며 "외국인과 주민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힘.
 - 북한의 이런 조치는 처음에는 권고·권유 수준이었지만 카다피 사망을 전후해 점차 강제성을 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함.

- **국제적십자사 "北수재민 아직 움집생활"(11/8, 미국의소리(VOA))**
 - 북한 수재민이 겨울을 앞두고 진흙과 비닐로 대충 만든 움집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8일 국제적십자사(IFRC)를 인용해 보도
 - 최근 북한을 방문한 프랜시스 마커스 IFRC 동아시아담당 대변인은 지난 5일 IFRC 홈페이지에서 올 여름 수해가 심했던 황해남도 상황을 전하면서 봉천군 석사리 주민들이 움집에서 지내고 있다고 밝힘.
 - 국제적십자사는 올여름 수해를 입은 함경남도 주민을 위해 500채의 집을 짓고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나머지 500여 가구는 마땅한 거처 없이 추운 겨울을 지내야 한다고 VOA는 전함.

- **"조총련계 학교, 일본인 납북 문제 수업 공개"(11/9, 교도통신)**
 - 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요코하마(横浜)시 가나가와(神奈川)구에 있는 가나가와 조선중고급학교는 이날 가나가와현 직원 4명과 현의회



의원 5명에게 이 학교 고교 3학년 학생 약 30명의 '현대조선역사' 수업을 공개

- 학교 측은 일본어로 진행된 수업에서 '(납치는) 있어서는 안 될 비인도적 행위'라고 적힌 '조일(북일)평양선언과 납치문제'라는 부교재를 사용했고, 일본인 납치 문제를 다룬 DVD를 틀어준 뒤 학생들에게 느낀 점을 물어본 것으로 전해짐.
- 가나가와현은 지난해 현 내 조선학교 5개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뒤 현대조선역사 교과서 중 '일본 당국이 "납치 문제"를 극대화해라는 표현과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을 '(한국이) 날조했다는 표현을 문제 삼았으며, 이후 학교 측은 문제가 된 부분을 고치겠다고 약속해 보조금을 다시 받는 한편,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서는 부교재를 사용해 수업하겠다고 약속함.

● "北, 아날로그 구식장비로 백두산 화산활동 관측"(11/10, 미국의소리(VOA))

- 미국의 과학전문 잡지인 '사이언스'가 최신힐에서 북한이 열악한 장비 때문에 백두산의 화산 활동을 관측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힘.
- 10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사이언스는 북한이 백두산에 지진계 6개를 설치했는데 디지털장비 1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중국제 아날로그 지진계를 개조한 것이고, 태양광이나 축전지로 관측 장비들을 가동하지만 겨울에는 작동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
- 특히 백두산 천지 연안에 있는 관측소의 경우 겨울에 4명이 숙식하면서 분화구 380m 아래의 구멍과 온천수 2곳에서 나오는 가스를 채취하지만 가스감지기 몇 대는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잡지는 전함.
- 사이언스는 백두산 화산 연구에 관한 북한과 중국의 협력이 그동안 원활하지 못했지만 내년부터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봄.

● "北 디지털사회 전환 문턱...통제수준 넘어서"(11/12, 미국의소리(VOA))

- 북한주민들의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 기술 이용이 당국의 통제 수준을 넘어설 만큼 급속도로 확산중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한 러시아 전문가를 인용해 12일 보도
- 1990년대에 북한 주재 러시아대사관에서 근무했던 알렉산더 만수로프 박사는 미국 노틸러스연구소가 이달 초 발간한 특별 보고서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은 현재 디지털 사회로 전환되는 문턱에 와 있다. 휴대전화 사용의 폭발적인 증가 등으로 인해 앞으로 당국의 통제가 약화될 것"으로 내다봤다고 VOA는 전함.
- 만수로프 박사는 "지금은 북한이 인터넷 사용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지만 일단 통제가 완화되면 북한에서도 이용자가 크게 늘어나는 만큼 과거로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주장
- 한편 노틸러스연구소의 피터 헤이즈 소장과 스콧 브루스 국장, 다이아나 마돈 연구원은 지난 8일 공동으로 발표한 글에서 "북한의 휴대전화



나 인터넷, 인트라넷이 김정일 정권에 대한 도전의 기반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함.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국가우표발행국, 北-中 외교관계 설정 및 조선전선참전을 기념하여 새 우표들(묶음전지 4종, 개별우표 1종) 발행(11/7, 중통)
- 김일성 著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 발표('37.11.10) 74돌 즈음 同 著作 발표의 '시대적 배경과 역사적 意義' 등 선전(11/9, 중통)
- 가극 '양산백과 축영대'공연대(단장 : 권혁봉 黨 부부장) 지휘성원들과 주요배우들, 11.9 이창춘(中國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과 베이징 세기극원에서 담화(11/10, 중통·중·평방)

2. 대외정세

가. 일반

● 北中 공안기관 수뇌부 회동(11/10, 신화왕(新華網))

- 북한 공안기관인 인민보안부 리태철 제1부부장과 중국 명젠주(孟建柱) 공안부장이 베이징에서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1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인터넷사이트 신화왕(新華網)에 따르면 명 부장은 9일 베이징에서 중국을 방문 중인 리태철 북한 내무군 사령 및 인민보안부 제1부부장과 회견을 갖고 법집행, 사회안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
- 명 부장은 이날 회견에서 "중조가 법집행과 안전을 위해 협조하는 것은 양국관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라며 "양측이 시중 중조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고려해 실제적인 법집행에서 협력을 밀고 나가야 한다"고 말함.
- 리 부부장은 "조선은 조중이 법집행, 안전을 위해 협력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본다"며 "조선 인민보안부와 중국 공안부 사이의 우정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희망한다"고 강조

● 北中 공안기관 수뇌부 회동(11/10, 신화왕(新華網))

- 일본 정부가 오는 15일 평양에서 열리는 북한과의 축구 월드컵 예선전에 외교관 등 공무원을 파견하기로 함.
- 1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의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외무상은 평양에서 열리는 월드컵 축구 아시아지역 3차 예선 일본-북한전에 의무성과 문부과학성 직원 13명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밝힘.



■ 기타 (대외 일반)

- '北-日 관계정상화' 실현 여부는 "일본의 과거청산과 反北 적대시정 책철회에 있다"고 "정책적 용단" 再次 촉구(11/9, 중통·노동신문)
- 北 인민내무군 대표단(단장 : 이태철 상장), 11.9 베이징 공안부청사에서 '멍지엔주'(中國 국무위원 겸 공안부장)와 담화(11/10, 중통·중방)

3. 대남정세

● 정부, WHO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11/8, 연합뉴스)

- 정부는 8일 유엔 산하기구인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한 대북지원 재개를 승인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류우익 통일부장관이 방미 당시인 지난 5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유엔기구를 통한 정부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 정부의 첫 번째 후속조치임.
- 지난해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정부 자금이 들어가는 대북 인도적 지원은 이번이 처음으로,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용으로 2009년 WHO에 지원한 1천312만 달러 가운데 694만 달러의 집행을 승인했다"고 밝힘.
- WHO는 북한에 의약품과 의료장비, 의료시설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2006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진행해왔으며, 1천312만 달러는 4차년도 지원분임.
- 통일부 당국자는 "5·24조치에도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순수 인도적 지원은 유지한다는 방침과 WHO의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면서 "5·24조치의 토대 위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
- 한편 통일부 당국자는 "어느 국제기구를 통할지, 지원 시기, 지원 규모 등에 대해 유관 부처와 협의해 구체화하고 있는 단계"이지만, "정부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면서 대북 식량지원을 주로 해온 세계식량계획(WFP)에 대한 지원은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설명

● 교회협, 밀가루 180t 대북 2차 지원(11/9, 연합뉴스)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오는 11일 북한에 밀가루 180t을 추가 지원한다고 9일 밝힘.
- 연합뉴스에 의하면, NCCK는 11일 개성 봉동역에서 북한 조선그리스도교련맹(조그련)에 밀가루 180t을 전달할 예정
- NCCK 관계자는 "이번 2차 대북 지원은 정부 당국의 승인을 받아 이뤄진 것"이라면서 "12월 초 북한 현지를 방문해 분배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모니터한 뒤 조그련과 3차 대북 인도적 지원 방안을 협의



할 것"이라고 말함.

● **남북, 개성 만월대서 문화재 긴급안전조치(11/13, 연합뉴스)**

- 남북이 고려 왕궁터인 개성 만월대에서 수해에 따른 문화재 안전조치에 나선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정부 관계자는 13일 "남측 남북역사학자협의회가 내일부터 북측 관계자들과 만월대에서 수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문화재가 더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힘.
- 남북역사학자협의회 관계자와 문화재 전문가 등 10여 명이 14일 방북해 오는 23일까지 열흘간 작업한 뒤 돌아올 예정
- 이번 안전조치에서는 상황에 따라 땅파기 등의 작업이 진행되므로 지난해 천안함 사건에 따른 5·24 대북제재로 중단된 공동발굴 사업이 1년5개월여 만에 사실상 재개되는 셈이라고 뉴스는 전함.
- 다만 이번 방북은 문화재 발굴보다 안전조치가 명분이고 5·24조치의 틀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방북 인원과 기간이 짧다는 것이 과거와 다른 점임.

■ **기타 (대남)**

- '韓-美 군사위원회 회의와 연례안보협의회'를 再次 거론하며 대통령 訪美에 대해 "사상 최악의 전쟁행각"이라 비난 및 南당국에 "미국과의 군사적 결탁 중단" 요구(11/7, 중통·노동신문·평방)
- <2011 호국훈련(10.27~11.4)> 실시 관련 "조그만 무장충돌도 임의의 시각에 북침전면戰으로 번질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며 "엄중한 후과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북침전쟁책동을 당장 중단할 것" 주장(11/8, 중통·노동신문)
- 「韓美 FTA」를 둘러싸고 "집권세력과 진보세력間 대립·갈등이 더욱 첨예화되고 있다"고 선동(11/9, 중통·노동신문·중방)
- 【조평통 서기국 보도 제986호(11.10)】我 공안당국의 '친북사이트를 수사' 관련 "난폭한 반인권적, 반민족적 폭거이고 반공화국 대결소동의 연장"이라 비난하며 "괴뢰패당이 아무리 발악해도 대세의 흐름인 연북통일기운을 거세할 수 없다"고 주장(11/10, 중통)
- 【조선중앙통신사 논평(11.10)】韓-美 內에서 北경제와 관련하여 '2년째 쇠퇴'하고 있다는 등의 소리(한국은행의 통계자료)들이 나오고 있다며 "자립적 민족경제의 참모습을 왜곡하기 위해 꾸며낸 궤변, 국제무대에서 대조선투자를 가로막고 대외경제관계를 차단하려는 비열한 행위"라고 비난(11/10, 중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北, 1~2개 핵무기 생산할 능력의 70% 도달(11/7)

- 북한 우리측 농축 프로그램(UEP) 문제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7일 북한의 핵무기 생산능력에 대해 "1~2개의 핵무기를 1년 안에 만드는 생산능력의 70%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이 소식통은 이날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0차 국제 군축·비확산회의에 참석, "영변 UEP 시설에 2천개의 원심분리기가 있다는 것은 대량 생산이 가능한 소규모 산업형(small industry) 시설라는 의미"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 그는 영변 이외에 UEP 시설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영변의 UEP 시설은 '케스케이드(cascade·원심분리기를 여러 개 모아놓은 것)'이며 나머지 R&D(연구·개발)와 파일럿, 부품생산 시설이 북한의 다른 지역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그는 특히 "UEP 시설은 북한이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하기가 어렵다"면서 "특히 산간의 터널지역에 UEP 시설을 만들어놓으면 찾을 수가 없다"고 지적하고 "영변의 UEP 시설은 최소 9년 이상이 걸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 한편 우리 측 6자회담 차석대표인 조현동 외교통상부 북핵기획단장은 이날 회의에서 "북핵 문제의 포괄적 해결 패키지인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 추진에 대해 6자회담 관련국인 5자가 공통의 이해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 조 단장은 "한국 정부가 구상 중인 그랜드 바겐 이니셔티브에는 구체적인 시간표와 행동조치들이 포함돼있다"며 "북한의 비가역적 비확화와 5자의 평화체제 보장과 관계정상화, 경제지원을 일괄적으로 타결하는 것이 기본 구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심지어 북한도 최근 '조선신보' 등의 언론매체를 통해 이 같은 일괄타결 방안을 언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오바마, 12일 中·러 정상과 北문제 논의"(11/10)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오는 13일(현지시간) 하와이에서 중국, 일본, 러시아 정상들과 회담을 갖는다고 백악관이 9일 발표했다.
-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11일부터 시작될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및 호주, 인도네시아 순방과 관련된 브리핑에서 중국,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에서



- 북한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음.
- 그는 "러시아 측과는 핵안보, 비확산, 이란, 북한 문제를 포함한 광범위한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면서 "중국과의 정상회담은 이란, 북한 문제를 포함한 비확산 문제와 경제 의제들을 논의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음.
 - 특히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는 위안화 환율 문제에 대한 미국의 우려도 거듭 전할 방침임을 시사했음. 로즈 부보좌관은 미국은 중국이 위안화에 대해 취한 조치가 실질적으로 충분하다고 믿지 않는다고 밝혔음.
 - 백악관은 하와이에서 열릴 이번 APEC 정상회담 기간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문제가 한 단계 더 진전되기를 기대하고 있음. 백악관은 또 이날 브리핑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9일간에 걸친 아시아 순방 기간에 미국의 일자리 창출 문제를 가장 우선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오바마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릴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하는 기회를 통해 만모한 싱 인도 총리, 베니그노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 잉락 친나왓 태국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할 예정임.

●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내주 초 빈서 회동(11/10)

-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4일부터 이틀간 오스트리아 빈을 방문해 미국의 새 대북정책 특별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주(駐) 국제원자력기구(IAEA) 미국대표와 회동한다고 외교통상부가 10일 밝혔음.
- 양국 수석대표는 상견례를 겸한 이번 협의에서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차 북미 고위급 대화 이후 북핵 문제와 관련한 현황을 평가하고 후속대화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임. 또 유키야 아미노 IAEA 사무총장 등 IAEA측 고위인사들과도 면담하고 북핵 문제와 관련한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 임 본부장은 이어 11월 18일부터 이틀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계기에 한·미 양자협약의 한·미·일 3자 협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 3자 협의에는 미국 측에서 커트 캠벨 동아태 차관보, 일본 측에서는 6자회담 수석대표인 스키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전 지구문제 담당 대사(심의관)가 참석함.

● 클린턴, 中에 '北우라늄' 압박 요구(11/12)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10일(현지시간) 북한의 우라늄 농축 중단을 위해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가할 것을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중국 외교부장에게 요구했음.
- 클린턴 장관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하와이에서 가진 양 부장과의 회담에서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우려를 거듭 중국 측에 전했다. 미 정부 고위당국자는 회담 후 기자들에게 "클린턴 장관은 우라늄농축 프로그램과 관련해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가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 이 당국자는 또 "클린턴 장관은 6자회담 복귀를 위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북한이 매우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중국이 북한에 촉구하도록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미중 외무회담에서는 이란 핵문제가 집중 논의됐음.
- 클린턴 장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발표한 이란 핵개발 보고서에 대한 미국의 심각한 우려를 전하면서 중국 측과의 긴밀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클린턴 장관은 또 티베트 승려들의 분신 사태와 중국의 계속되는 인권변호사 가택연금 등을 거론하면서 중국의 인권개선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음.

● <北-이란 핵·미사일 협력 대규모로 진행되는듯>(11/13)

- 북한과 이란의 핵·미사일 커넥션에 관한 새로운 정보가 13일 유력한 외교소식통에 의해 알려지면서 양국의 핵·미사일 기술협력 방식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음.
- 북한과 이란이 각각 우위에 있는 미사일개발 기술과 우라늄농축 기술을 서로 주고받았다는 커넥션의 실태를 파악할 만한 실마리가 새롭게 나타난 것임. 우선 수백 명의 북한 기술자가 이란의 주요 핵·미사일 시설에서 일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양국 간 기술협력이 대규모로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됨.
- 이처럼 인적 교류가 대규모로 진행되다 보니 양국 정부가 조직적으로 이 협력에 관여하는 정황도 보임. 북한 기술자들이 조선노동당 소속의 군수공업부 산하 99호실 출신으로 파악되는 것이 그것임.
- 외교가에서는 북측이 이란에 기술자를 보내 핵 기술을 습득하고 미사일 기술을 전수하는 작업을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북한 측 기술자들이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교대 근무를 하는 것도 이런 차원으로 분석됨.
- 외교가에서는 이런 긴밀한 밀착관계를 양국 간 오랜 협력의 산물로 보고 있음. 1980년대부터 미사일을 중심으로 군사협력과 기술제휴를 해왔던 양국의 교류가 시간이 지나면서 전방위적인 기술 협력 관계로 발전했다는 추정인 셈임.
- 그동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란의 샤하브 미사일이 북한의 노동미사일을 기초로 만들어졌으며 이를 토대로 다시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과 이란의 샤하브-5 미사일이 만들어졌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음.
- 또 폭로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는 지난해 11월 이란이 사거리가 3천Km 이상인 북한제 BM-5 미사일 19기를 확보했다는 2010년 2월24일자 미국 외교전문을 공개했으며 이와 비슷한 시기에 북한이 공개한 우라늄 농축시설을 놓고 이란의 시설과 유사하다는 의혹이 전문가 사이에서 제기된 적도 있음.
- 그러나 이란 정부는 북한과 관련된 이런 의혹들이 제기될 때마다 부인하고 있음. 평화적 목적의 핵개발을 주장해온 이란의 마무드 아마디네



자드 대통령은 최근 자국의 핵무기 개발 의심에 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음.

나. 미·북 관계

● 北·中, 합작 영화 '아리랑' 제작(11/7)

- 북한과 중국이 합작 영화 '아리랑' 제작에 나섰다라고 중국 매체 북청망(北靑網)이 7일 보도했음. 이 매체는 류동(劉冬)과 리명난(李夢南) 등 영화 아리랑에 출연하는 중국 배우들이 최근 평양에 도착, 본격적인 촬영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 이 매체는 북한이 김일성 주석의 90회 생일을 기념해 2002년부터 연인원 10만 명이 출연하는 집단 체조 아리랑을 공연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이 영화는 양국 무용계의 문화 교류 과정 중 생긴 에피소드를 다루게 된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음. 이 영화는 올해 연말 제작을 마친 뒤 내년 상반기 상영될 예정임.
- 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제작되는 이 영화는 북한의 김현철과 중국 감독 시얼자티가 공동으로 연출을 맡는 등 국 최고의 제작진과 배우들이 출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中하얼빈 관광단, 금강산 관광(11/7)

- 중국 하얼빈(哈爾濱)에서 온 시범국제관광단이 금강산을 관광하고 7일 귀국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음. 중앙통신은 "관광단 성원들이 구룡연, 신계사, 삼일포, 해금강 일대를 돌아보며 기묘한 봉우리와 절벽, 기암괴석 등 절경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며 "체류 기간 이들은 만경대를 방문하고 개선문, 우의탑 등을 참관했다"고 전했다.
- 헤이룽장(黑龍江)성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인 진희빈을 비롯한 하얼빈-금강산 시범 국제관광단은 지난 4일 전세기편으로 방북했음.

● 北中 공안기관 수뇌부 화동(11/10)

- 북한 공안기관인 인민보안부 리태철 제1부부장과 중국 명젠주(孟建柱) 공안부장이 베이징에서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 1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인터넷사이트 신화왕(新華網)에 따르면 명 부장은 9일 베이징에서 중국을 방문 중인 리태철 북한 내무군 사령 및 인민보안부 제1부부장과 회견을 갖고 법집행, 사회안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음.
- 명 부장은 이날 회견에서 "중조가 법집행과 안전을 위해 협조하는 것은 양국관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라며 "양측이 시종 중조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고려해 실제적인 법집행에서 협력을 밀고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리 부부장은 "조선은 조중이 법집행, 안전을 위해 협력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본다"며 "조선 인민보안부와 중국 공안부 사이의 우정을 더욱 강



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 중앙통신은 앞서 8일 '왕래소식'에서 리 부부장이 북한 인민내무군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 방문을 위해 평양을 출발했다고 전한 바 있음. 리 부부장의 직책은 상장이라고만 소개했음. 양측 언론은 리 부부장의 구체적인 방북 배경과 회견내용은 전하지 않았음.
- 양측 공안당국의 최고위급 간부가 화동하는 것은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명 부장은 지난 2월 2박3일 일정으로 방북해 주상성 당시 인민보안부장(3월 해임)과 회담을 하고 협조 합의서에 서명했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 과도 면담한 바 있음.
- 인민보안부는 인민무력부, 국가안전보위부와 함께 김정일 위원장의 3대 직속기구로 남한의 경찰청과 같은 기구이지만, 주로 주민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탈북자 23명 中서 북송 위기"(11/10)

-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CNKR)는 10일 긴급성명서를 발표하고 현재 총 23명의 탈북자가 북송 직전에 있다고 밝혔음.
- CNKR는 "중국 산둥(山東)성 칭다오(靑島)에서 체포된 5명, 허난(河南)성 정저우(鄭州) 부근에서 체포된 어린이 3명,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에서 11명, 윈난(雲南)성 쿤밍(昆明)에서 4명 등 총 23명의 탈북자가 북송 직전에 있다"고 설명했다.
- 이 단체는 "최근 북한은 북송된 탈북자와 가족에게 더욱 가혹한 처벌을 단행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들의 생명 보호를 위해 중국 공안당국에 석방을 강력히 촉구하고, 국내 입국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다. 일·북 관계

● "조총련계 학교, 일본인 납북 문제 수업 공개"(11/9)

-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계열 조선학교가 일본 지방정부의 보조금을 계속 받기 위해 일본인 납북 문제를 다룬 수업을 일본 측 관계자들에게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 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요코하마(横浜)시 가나가와(神奈川)구에 있는 가나가와 조선중고급학교는 이날 가나가와현 직원 4명과 현의회 의원 5명에게 이 학교 고교 3학년 학생 약 30명의 '현대조선역사' 수업을 공개했음.
- 학교 측은 일본어로 진행된 수업에서 '(납치는) 있어서는 안 될 비인도적 행위'라고 적힌 '조일(북일)평양선언과 납치문제'라는 부교재를 사용했고, 일본인 납치 문제를 다룬 DVD를 틀어준 뒤 학생들에게 느낀 점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음.
- 가나가와현은 지난해 현대 조선학교 5개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뒤 현대조선역사 교과서 중 '일본 당국이 "납치 문제"를 극대화해라



는 표현과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을 '(한국이) 날조했다는 표현을 문제 삼았음.

- 이후 학교 측은 문제가 된 부분을 고치겠다고 약속해 보조금을 다시 받는 한편,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서는 부교재를 사용해 수업하겠다고 약속했음. 수업을 지켜본 고이타바시 사토시(小坂橋聰士) 가나가와현 학사진흥과장은 "(학교측이) 납치 문제에 관한 수업을 충분히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 **日, 평양 축구월드컵 예선전에 외교관 파견(11/10)**

- 일본 정부가 오는 15일 평양에서 열리는 북한과의 축구 월드컵 예선전에 외교관 등 공무원들을 파견하기로 했음.
- 1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의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외무상은 평양에서 열리는 월드컵 축구 아시아지역 3차 예선 일본-북한전에 외무성과 문부과학성 직원 13명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밝혔음.
- 공무원 파견단은 스즈키 고타로(鈴木光太郎) 외무성 정책과장이 이끌 예정임. 겐바 외상은 이들 공무원의 파견이 응원을 위해 평양을 찾은 일본 축구팬의 안전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日정부, 방북 축구팬에 "관광 말라" 당부(11/12)**

- 일본 정부가 평양에서 열리는 북한과의 월드컵 축구 아시아 지역 예선전 응원을 위해 북한을 방문하는 자국 축구팬에게 관광 자속을 요청했음.
- 1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11일 기자회견에서 평양을 방문하는 축구팬에게 "축구 경기 관전 이외의 관광을 하지 말도록 요청한다"고 밝혔음. 그는 또 일본 축구협회를 통해 응원을 위한 북한 방문을 알선하고 있는 여행회사에도 이런 방침을 통보하도록 나가가와 마사하루(中川正春) 문부과학상에게 지시했다고 밝혔음.
- 일본 정부는 2006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경제 제재의 하나로 국민에게 북한 방문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교가 없어 응원단이 북한 여행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호가 어려울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라. 러·북 관계

● **러시아, 北에 식량 5만t 지원 완료(11/10)**

- 러시아의 대북지원식량 5만t의 납입이 끝났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음. 중앙통신은 "남포항에서 기증식이 진행됐다"며 "김지석 북한 수매양정성 부상, 발레리 수히닌 주북 러시아 대사 등이 기증식에 참석했다"고 밝혔으나 지원물자의 종류나 양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통신은 이어 "러시아가 북한에 식량을 기증한 것은 양국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 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음.



마. 기 타

● 엘더스그룹 정책국장 방한..남북대화 '중재' 모색(11/13)

-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진직 국가수반들의 모임인 '더 엘더스(The Elders)' 실무진이 대북문제 협의차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한다고 외교소식통들이 13일 밝혔다.
- 앤드류 위틀리 정책국장(Policy and Advocacy Director)이 이끄는 엘더스 실무진은 14일 외교통상부 임웅순 북핵외교기획단 부단장과 만나고 통일부 당국자와도 면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엘더스그룹의 국장급 실무자가 내주 외교부를 찾을 예정이며 대북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 상황을 알아보고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엘더스 측은 특히 북한의 한 고위인사가 남북정상회담 의지를 피력하고 이를 위한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다는 사실을 우리 측에 전달하고 당국간 대화에 적극 나서줄 것을 권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엘더스 측은 이어 곧바로 북한도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져 향후 추이가 주목됨.
- 정부 당국자들은 북한이 엘더스를 통해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다는 소식이 전해진데 대해 "크게 의미를 두기 어렵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북한이 이미 지난 4월 엘더스 방북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한 적이 있어 새로운 얘기가 아닌데다 현시점에서는 엘더스가 굳이 나설만한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 그는 "남북한 비핵화 회담이 두 차례 개최되고 남과 북도 관련국들의 지지 속에서 관계개선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어 굳이 '제3자'의 도움이 필요한 단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 외교가에서는 북한이 엘더스 실무진의 방한을 활용해 남북 정상회담 등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새로운 메시지를 제시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성김 주한美대사 부임.. "한미동맹에 최선"(11/10)

- 성김 주한 미국대사는 10일 "한미관계는 어디와 비교해도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라면서 양국 동맹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수교 129년 만의 첫 한국계 미국 대사인 김 대사는 이날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한 직후 성명에서 "한미는 특별한 파트너십을 갖고 있으며 우리의 관계는 공통 역사와 가치관, 경험에 바탕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사는 또 한국말로 "감사합니다"라면서 "한미동맹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그는 성명에서 "따뜻한 환영에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를 영어와 한국어로 번갈아 말한 뒤 "이 자리에 서게 돼 진정으로 영광으로 생각한다. 지난 40년간 살던 미국을 대표해 한국에 오게 된 것은 영광"이라고 말했다.
- 그는 "우리는 특별한 파트너십을 갖고 있으며 우리 관계는 공통의 역사와 가치관, 경험에 바탕한 것"이라면서 "부모님과 유년시절을 한국에서 보낸 덕택에 한국 문화와 전통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다"고 강조했다.
- 그는 또 "미국 외교관이자 이민자로서 미국적 가치관에 대해서도 깊은 존경을 갖고 있다"면서 "25년간 외교관 생활을 하면서 미국의 가치를 외국에 알리는 역할을 해왔다. 한국의 친구들과 이런 경험을 나눌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그는 "여기에는 안보관계 강화도 포함돼 있다"면서 "서로 혜택을 주는 무역관계와 경제관계를 확대시키는 것과 한반도를 넘어선 사안에 대해서도 계속 양국이 협력하는 내용도 포함되며 계속 함께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미FTA 처리 또 연기..여야 해법 찾을까>(11/10)

-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파국을 막기 위한 여야 협상파들의 절충 노력이 난항을 겪고 있음. 여야 모두 당내 강경론이 만만치 않아 고전을 거듭하고 있는 형국임.
- 민주당의 경우 강봉균 김성곤 최인기 김동철 의원 등 온건파들이 핵심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절충안을 만들어 전체 의원 87명 가운데 과반이 넘는 45명의 지지를 이끌어 냈으나 손학규 대표 등 당 지도부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더 이상 진척을 시키지 못한 채 '숨고르기'를 하는 형국임.
- 한나라당은 대표적 협상파인 황우여 원내대표와 국회 남경필 외교통상 통일위원장이 협상과 대화를 계속 주장하며 민주당의 'ISD 절충안' 당론 채택을 기다리고 있으나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당내 강경론이 확산되고 있어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했음.
- 다만 여야 의원 8명이 이날 한미FTA 비준안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 각당이 일방적 처리 및 물리적 저지에 나서지 않을 것을 공동으로 촉구해 온건파들의 협상노력에 힘을 보탤 예정임. '의회 민주주의를 살리자'는 제목의 공동 성명에는 한나라당 주광덕 현기환 황영철 홍정욱 의원, 민주당 박상천 강봉균 김성곤 신낙균 의원 등 여야 의원 4명씩이 참여했음.
- 이 같은 노력 속에 여야 원내지도부가 비준안 처리의 2차 디데이(D-day)로 여겨졌던 10일 국회 본회의를 취소하면서 비준안 처리를 다시 한 번 미뤘지만 여야 간 절충이 끝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물리적 충돌 등 구태를 반복하면서 파국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 다음번 본회의가 24일로 잡혀 있지만 국회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지



- 않아 국회의장이 결정하면 언제든지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게 한나라당의 설명임. 한나라당은 내부적으로 협상 시한을 금주까지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다할 성과가 없을 경우 내주부터는 국회의장에게 직권 상정을 요청하는 등 단독처리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제기됨.
- 남 위원장이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과 협상 파에 대한 지지를 거듭 표명하면서도 "(협상)시한이 무한정될 수는 없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됨.
 - 민주당 온건파는 이날 오전 별도 모임을 갖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음. 이날 모임에는 강봉균 김성곤 김동철 의원 등 5-6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일단 지도부의 강경기류를 감안해 당장 속도를 내기보다는 한나라당의 입장과 양당 원내대표간 협상결과를 지켜보면서 향후 입장을 정리해 나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런 상황에서 직권상정의 '키를 쥐고 있는 박희태 국회의장은 거듭 여야간 타협을 주문했음. 박 의장은 오전 기자들과 만나 "타협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모색하는 것이 정치의 본체이고, 정치 지도자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며 "빨리 타협의 정치를 복원하기 바란다"고 촉구했음.

●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 내일 방미(11/13)

- 김홍균 외교통상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이 오는 14일 5박6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함. 김 단장은 로버트 킹 대북인권특사와 에드워드 케이건 미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 대리, 클리포드 하트 6자회담 특사 등 미 정부 핵심 당국자들을 만나 대북 식량지원과 탈북자·납북자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임.
- 김 단장은 또 미국 내 한반도 문제 전문가와 학계 인사들과도 두루 만남. 외교부 당국자는 13일 "이번 방미는 정례적인 실무차원의 협의를 위한 것"이라면서 "미국 측 인사들과 다양한 사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말했음.

나. 한·중 관계

● <中 어선 선장 시신 10개월째 한국에 방치>(11/8)

- 지난해 12월 서해에서 불법조업 단속 중이던 군산해경의 경비함을 들이받고 침몰하면서 숨진 중국 어선 선장의 시신이 10개월이 넘도록 한국에 방치되고 있음.
- 8일 군산시와 해경에 따르면 당시 숨진 선장의 시신이 10개월이 넘도록 군산 중앙장례식장에 안치돼 있음. 장기간 인도가 지연되면서 부패한 시신은 이미 탈골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음.
- 안치 비용도 5천여만 원에 달하는 등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장례식장 측은 "경제적으로 어렵다"면서 조속한 시신 처리와 안치비용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음. 선장의 인도가 늦어진 것은 무엇보다 당시 충돌사고에 대한 한·중 양국 외교부의 견해차 때문임.



- 한국 측은 "당시 중국어선이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하고 경비함을 들이받은 만큼 정당한 법 집행이었다"는 입장이지만, 중국 측은 "선장 사망은 한국 경비함의 과잉단속 때문"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음. 한 마디로 중국 측이 자기 주장을 고수하며 선장의 시신 인도를 꺼리기 때문으로 풀이됨.
- 외교통상부 영사서비스과 서은영 서기관은 "계속 협상 중이지만 양국의 이견으로 협상이 다소 늦어지고 있다"면서 "이 문제를 인도적 차원에서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음.

다. 한·일 관계

● 日 정부, 한국에 독도 음악회 철회 요구(11/9)

-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독도 음악회의 철회를 요구했음. 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국회의원들의 독도 음악회 추진과 관련 우리 정부에 음악회를 중단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음.
-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도 기자회견에서 "한국 국회의원의 독도 방문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여러 경로를 통해 한국에 항의하겠다"고 말했음. 일본 언론은 한국의 '독도를 지키는 국회의원 모임(약칭 국회 독도지킴이)'이 11일 독도에서 음악회를 연다고 보도했음.

● 한일 '동해표기' 양자협의를..입장차만 확인(11/10)

- 한·일 양국이 최근 동해의 영문표기 문제와 관련해 양자차원의 실무협의를 했다고 외교소식통들이 10일 밝혔음. 그러나 일본 측이 동해를 'Sea of Japan'이라고 표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서로 입장차를 좁히는 데 실패했음.
- 복수의 외교소식통은 이날 "국제수로기구(IHO)의 권유에 따라 일본 측과 과장급 양자협의를 열었다"면서 "입장차만 확인하는데 그쳤으며 다음에 다시 만날지도 불투명하다"고 말했음.
- 우리 측은 동해의 공식 영문명칭이 'East Sea'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동해·일본해 병행표기 입장을 밝혔으나 일본 측은 'Sea of Japan'으로 표기해야 한다는 견해를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우리 정부는 내년 4월 IHO 총회에서 일본해 단독표기를 저지하는데 외교적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임.

● <日 TPP 협상 참여..한국엔 어떤 영향>(11/11)

- 일본이 사실상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겨냥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여를 공식화함에 따라 국회에 계류 중인 한미 FTA 비준안과 향후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음.
- 정부는 일본의 움직임에 대해 말을 아꼈지만, 통상전문가들은 이를 미일



- FTA의 우회전술로 보고 국회 계류 중인 한미 FTA 비준안의 조속한 처리를 통해 선점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일본의 TPP참여 선언 소식이 전해진 뒤 "이제 협상을 시작하는 단계이고 큰 그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선불리 얘기하기 어렵다"면서 "협상과정을 지켜보며 대응책이 필요하다면 준비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음.
 - 또 "우리도 한때 TPP 참여를 검토하기도 했지만 TPP 참여국의 면면을 감안할 때 추가로 관세폐지의 혜택을 누릴 여지가 적은 것으로 판단, 유보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 실제 현재 TPP 참여 10개국은 모두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했거나 추진 중인 상태임. 미국은 발효에 필요한 비준안 처리를 눈앞에 두고 있고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과는 협의단계에 있음. 페루, 칠레는 양자 FTA가 발효된 상태며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나머지 국가도 한-아세안 FTA의 틀에 포함돼 있음.
 - TPP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적다고 보는 이유는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FTA의 경우 두 나라 간에 맺는 FTA보다 관세철폐의 폭과 범위가 좁을 수밖에 없고 이해당사국의 수가 많아 합의도출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임.
 - 하지만 세계 5대 경제 강국인 일본이 국내 농가 등의 강한 반발에도 장기침체의 늪을 벗어나기 위한 전략도구로 TPP를 선택함으로써 TPP의 위상이 한층 강화된 점은 우리에게도 잠재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음.
 -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본이 한미 FTA를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심정에서 미국과의 FTA를 TPP라는 이름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규정했음. 정 교수는 "다자 협상이란 게 제대로 타결되기는 어렵지만 잘 타협이 된다면 최대 단일시장인 미국에서 한미 FTA에 따른 우리의 선점 효과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면서 "국회가 한시라도 빨리 한미 FTA 비준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실제 한-칠레 FTA 효과를 보면 발효 전 3%에 불과했던 칠레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점유율은 협정발효 이후 7%까지 올랐으나 중국, 일본이 칠레와 FTA를 체결하고 나서 6.4%로 밀렸다는 게 정 교수의 설명임.
 - 정부도 제조업 성격이 유사한 TPP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우리나라 제품의 제3국 수출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우려해 분석작업에 착수한 상태임. 최석영 통상교섭본부 FTA 교섭대표는 "일본의 TPP 참여를 계기로 국회가 한미 FTA의 비준안 처리를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요청했음.
 - 한편 김영무 통상교섭본부 FTA정책심의관은 우리의 TPP 참여 전망에 대해선 "참가국이 아태 경제권 전역으로 확대되거나 지정학적, 경제 전략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장기적으로 고려해 볼 수는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라. 미·중 관계

● 후진타오·오바마, APEC 비공식 모임서 회동(11/8)

-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2~13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만날 것이라고 관영 신화통신이 8일 보도했음.
- 우하이룽(吳海龍)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는 7일 후 주석의 APEC 참석과 관련한 설명회에서 "회의 기간에 후 주석이 APEC 내 주요기업 대표들의 회담 자리인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에 참석할 예정이며 여기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만날 예정"이라고 소개했음.
- 우 부장조리는 그러나 후 주석과 오바마 대통령이 별도의 회담을 할지는 밝히지 않았음. 그는 그러면서 "APEC 회원국들은 지난해 합의했던 균형 있고 포괄적이면서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이며 안전한 경제성장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그는 아울러 "모든 회원국은 무역·투자 자유화와 더불어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해야 하며 경제·기술 협력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 APEC서 美-中, 아시아 경제 패권 충돌>(11/13)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배제된 중국이 아시아 지역의 경제 패권을 놓고 미국과 치열한 경쟁에 나섰다." 아시아신문과 요미우리신문, 니혼게이지신문 등 일본의 주요 언론은 13일 일제히 일본의 TPP 협상 참여 선언을 계기로 미국과 중국이 아시아의 경제 패권을 놓고 격렬한 경쟁을 시작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음.
- 이들 언론은 하와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아시아지역의 경제 통상 주도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부각됐다고 전했다.
- 중국의 위젠화(俞建華) 상무부 차관보는 11일(미국 시간) TPP와 관련 "중국은 어떤 나라로부터도 TPP에 초대받지 못했다"면서 "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은 투명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그는 또 "일본의 TPP 협상 참여를 뉴스를 보고 알았다"면서 "일본은 지금까지 중국 한국 일본 3국간 FTA 등으로 지역 경제의 통합 메커니즘을 촉진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혀왔다"고 일본의 TPP 전환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음.
- 이는 미국이 주도하는 TPP의 폐쇄성을 비판한 것으로 중국을 돌려놓고 미국과 일본이 TPP를 서두르고 있는데 대한 강한 불만 표시임.
- 이에 대해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TPP는 폐쇄적 클럽이 아닌, 관심 있는 모든 나라에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면서 "초대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맞받았음.



- 커크 대표는 국영기업이 이익을 독점하는 중국의 경제 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음.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도 "TPP가 타당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미국이 TPP를 축으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상 확대를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음.
- 그는 "21세기 세계의 전략적, 경제적 중심은 당연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미국은 향후 10년간의 외교적 경제적 전략적 투자를 이 지역에서 확실하게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중국은 이에 대해 기존에 추진하던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에 한중일 3개국이 참여하는 13개국 FTA를 성사하기 위해 총력을 경주 할 것으로 예상됨. 하지만 이에 대해 일본은 '아세안+한중일'에 인도와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한 16개국 FTA를 제안해 중국을 견제하면서 TPP를 통한 미국과의 경제 동맹을 추진하고 있음.
- 미국과 일본은 중국의 TPP를 통해 관련 국가들과 경제 동맹을 강화하고 이를 외교·안보 협력체로 공고화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경제·군사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을 봉쇄하려 하고 있음.
- 미국은 중국 포위망 구축을 위해 한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에도 TPP 참여를 촉구하고 있음.

● "美·아세안 정상, 中에 국제법 준수 촉구 방침"(11/13)

- 미국과 아세안(ASEAN)이 18일 정상회의에서 남중국해에서의 영유권 분쟁과 관련, 중국에 국제법 준수를 촉구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3일 보도했음.
- 이 신문에 의하면 미국과 아세안은 18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국제법과 평화적 분쟁 해결의 원칙에 의거해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기로 했음. 이는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베트남 등과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을 미국과 아세안 국가들이 견제하기 위한 것임.
- 아세안은 중국과 지난 7월 열린 외교장관 회의에서 남중국해에서의 개발 협력 등 공동의 활동 항목을 열거한 '행동지침'을 채택했으나 영유권 갈등을 둘러싼 긴장상태는 지속되고 있음. 미국과 아세안은 이번 발리 정상회의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행동규범'의 조기 책정을 중국에 촉구할 예정임.

마. 미·일 관계

● 日 외상 "美쇠고기 수입제한 완화 절차 개시"(11/11)

- 일본의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외무상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음.
- 교도통신에 의하면 겐바 외무상은 11일 호놀룰루에서 열린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규제 완화



를 위한 절차의 준비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고위 인사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제한 완화와 관련, 이처럼 구체적 발언을 한 것은 처음임.

- 일본 정부는 광우병(BSE) 감염을 계기로 월령 20개월로 수입을 제한했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내년 상반기쯤 수입 월령을 30개월로 완화할 방침임. 일본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2003년 말부터 쇠고기 수입을 중단했다가 2005년부터 월령 20개월 이내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용해왔음. 이 때문에 2002년 24만에 달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작년도의 경우 9만9천에 그쳤음.

● <美, 日에 車·쇠고기 등 3개분야 개방 요구>(11/13)

-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여를 선언한 일본에 자동차와 쇠고기 시장 등의 진입규제 철폐를 요구했다고 일본 언론이 13일 보도했음.
- 아사히신문과 니혼게이지신문 등에 따르면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2일(미국 시간 11일) 기자회견에서 일본과의 TPP 사전교섭 때 쇠고기 수입 규제 철폐, 자동차 시장의 진입장벽 개선, 우편회사인 일본우정의 보험업에 대한 우대조치 재검토 등 3개 분야를 중점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음. 그는 "이들 3개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일본과 많은 협의를 해왔으나 양자간 협의를 향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 이는 일본이 내년 봄 TPP 협상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전 사전 협상을 통해 이들 3개 분야에서 확실한 양보를 얻어내겠다는 의미임.
- 일본은 지난 11일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TPP 참여 의사를 밝혔으나 협상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하고 미국 정부는 이를 의회에 설명해야 함.
- 커크 대표는 일본의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경제산업상과의 회담에서 이런 입장을 전달했음.
- 미 자동차업계는 일본의 자동차시장 진입 장벽을 들어 일본의 TPP 참여를 반대하고 있으며, 보험업계는 일본우정의 보험업을 정부가 보증하고 있어 경쟁조건이 대등하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음. 쇠고기의 경우 일본 정부는 미국 측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월령 제한을 현재의 20개월에서 30개월로 완화한다는 방침임.
- 호놀룰루에서 열린 TPP 협상 참가국 각료회의에서는 일본이 지금까지 타국과의 FTA에서 철폐하지 않고 있는 품목의 시장 개방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음. 지금까지 FTA에서 일본의 관세 철폐 품목 비율은 84~88%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쌀 등 농산물을 중심으로 940개 품목은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해 왔음.
- 미국은 물론 뉴질랜드와 호주 등이 특히 일본의 농산물 시장 개방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음. 이에 따라 일본은 TPP 협상 과정에서 공산품의



- 시장 진입 장벽 제거와 농산물 시장 개방 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하와이를 방문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이날 오전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TPP 협상 참가를 위한 관련국과의 협의 방침을 밝혔다.

바. 미·러 관계

● 〈美-러 정상 APEC 회의서 각별한 유대 과시〉(11/13)

-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2일(미국 하와이 시간) 양자회담을 열고 국제 현안 및 양국 협력 방안에 논의했다고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이 13일(모스크바 시간) 보도했음.
- 미국 하와이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틀 내에서 만난 두 정상은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최근 몇 년 간의 양국 협력 성과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하고 이란 핵문제 등에서 공조를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음.
- 두 정상은 서로를 '친구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친구 오바마' 라고 부르며 각별한 친밀감을 과시했음. 오바마 대통령은 회견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이란이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스스로의 책임을 다하도록 공동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음. 최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것과 관련, 국제사회의 여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음.
- 미국은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 선제 군사공격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강경 자세를 보이는 것과는 달리 무력 사용 자제를 촉구하면서도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러시아는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한편 이란에 대해서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양국 정상은 이날 이란 문제 외에 시리아 소요 사태와 아프가니스탄 대(對) 테러전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오바마 대통령은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함께 양국 관계를 재설정(reset)할 수 있었다"며 새로운 미-러 전략무기감축협정 체결과 대(對) 이란 제재 공조, 러시아의 WTO 가입과 관련한 협력 등을 중요한 성과로 꼽았음.
-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의회와 '잭슨-베닉 수정안' 폐지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이는 러시아의 WTO 가입으로 열리게 될 가능성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오바마 대통령은 또 "아직 형식 절차가 끝나진 않았지만 러시아가 WTO 가입 요청을 받은 상태"라면서 "러시아의 WTO 가입은 러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음.
- 이에 메드베데프 대통령도 "오바마 대통령과의 관계에 전적인 만족감을 표시하고 싶다"며 "예전과 다른 가장 중요한 차이는 상호 신뢰가 형성됐



다는 것이며 신뢰가 있을 때만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러시아의 WTO 가입을 미국이 적극적으로 지원한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 메드베데프는 이어 많은 문제가 이미 해결됐지만 아직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문제들도 남아있다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미국의 유럽 미사일 방어(MD)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러-미 간의 이견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 중·일 관계

● 日, 영해 침범 中선장 벌금 30만엔 받고 석방(11/9)

- 일본은 최근 자국 영해를 침범한 혐의로 체포한 중국 어선 선장에 대해 벌금 30만 엔을 받고 석방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교도통신이 9일 보도했다. 나가사키(長崎) 구(區)검찰청은 이날 오후 중국인 선장 장텐슁(張天雄, 47)씨를 석방했다.
- 이제 앞서 장 선장은 나가사키 간이재판소에서 일본 어업법 위반(입회 검사 기피)죄로 벌금 30만 엔의 약식 명령을 받은 뒤 벌금을 냈음. 구검찰청은 간이재판소에 대응하는 검찰 기관임.
- 장 선장은 6일 오전 10시50분께 나가사키현 고토(五島)열도의 도리시마(鳥島) 앞바다에서 나가사키 해상보안부의 정지 명령을 듣지 않고 도주하다 붙들렸음.
- 해상보안부는 중국 어선이 일본 영해에서 조업한 흔적은 없다며 입회 검사 기피 혐의로만 입건했다.

● 후진타오, 日 총리에 '협력' 강조해 눈길(11/13)

-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여를 선언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에게 양국 간 협력을 강조했다.
- 신화통신에 따르면 후 주석은 하와이에서 12일 열린 제19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지도자회의 도중에 노다 총리와 만났음. 후 주석은 이 자리에서 "중국은 일본과 지역 협력은 물론 국제적인 이슈에 대한 공조를 발전시켜가기를 희망한다"며 "중국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아시아에서의 지역협력, 국제금융위기와 기후변화협약 등의 이슈에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역설했음.
- 후 주석은 "중일 관계 개선과 증진은 양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 평화, 안정, 번영에도 긍정적인 이바지를 할 수 있다"며 "중국은 중일 관계 발전에 대한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있으며 일본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을 고수해왔다"고 언급했음.
- 그는 "중국은 일본과 정치, 경제, 문화, 인적교류 분야는 물론 양자관계, 지역 및 국제 영역에서 전면적인 대화, 교류, 협력을 강화할 의지가 있



- 다"고 덧붙였음. 이어 "내년이 중·일 외교관계 수립 40주년으로 이를 계기로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증진시켜 가자"고 강조했다. 후 주석은 노다 총리에게 정치적 신뢰 강화를 위한 고위급 인사교류 활성화, 친환경 에너지 및 첨단기술 분야 등의 교류 확대를 골자로 5가지를 제안했음.
- 지난 11일 노다 총리가 사실상 미국·일본 FTA로서 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다분한 TPP 협상 참여를 전격적으로 선언한 가운데 후 주석의 제안이 나왔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음. 이와 관련해 중국의 관영 매체들은 일본정부의 TPP 협상 참여를 사실 위주로 보도했으며 중국 정부는 아직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음.
 -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과의 FTA에 이어 대만과의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체결로 아시아에서 새 질서 구축에 나섰던 중국이 경제협력은 물론 정치·군사·외교 동맹으로 확대될 TPP로부터 배제되는 상황이 현실화하자 핵심 당사국인 일본에 대한 '유화' 정책을 더 강화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아. 중·러 관계

● 中·러시아 총리, 주요 국제 이슈에 공감대(11/8)

-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가 7일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회담을 갖고 최근 국제 정치·경제 상황을 포함한 공통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8일 보도했음.
- 원 총리는 회담에서 양국 간에 빈번한 고위층 교류와 정치적 신뢰 증대, 경제·무역협력 확대, 주요 국제이슈에 대한 밀접한 협력이 지속돼왔다면서 이웃이자 주요 강대국인 양국이 전략적 협력과 우호관계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음.
- 원 총리는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 간의 건강한 관계는 양 국민의 근본적인 이익에 맞을 뿐더러 세계 평화와 발전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양국은 특히 국제사회가 특정 '파워' 또는 파워 그룹에 의해 지배되는 데 반대한다"고 덧붙였음.
- 원 총리는 이어 "양국이 손을 맞잡고 서로 도우면서 도전을 해결해가기를 희망한다"며 "양국은 특히 국제정치의 민주화와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제 정치·경제 질서를 만들어가는데 공동 협력해야 한다"고 주문했음.
- 원 총리는 "러시아는 선진 기술과 풍부한 지하자원이 있고 중국은 거대한 시장으로서 서로 이점을 갖고 있다"며 "이를 이용해 양국은 상호호혜의 협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원 총리는 "무엇보다 양국이 무역, 투자, 금융, 과학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면 양국 국민에게 구체적인 성과를 안겨줄 수 있으며 양국의 국가경쟁력을 높이면서 세계 경제의 회복과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에 푸틴 총리도 "러시아와 중국이 폭넓은 공통의 관심사를 갖고 있고 같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양국이 포괄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관계를



- 증진시켜야 한다"고 화답했음.
- 푸틴 총리는 회담에서 올해 양국 교역액이 800억 달러가 넘을 것이고 2천억 달러 수준까지 빠르게 확대될 것이라면서 교역 확대를 희망했음. 푸틴 총리는 아울러 상하이협력기구(SCO)에 파키스탄과 이란을 가입시키자고 제안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와 관련해 원 총리와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음.
 - 러시아는 SCO를 경제협력을 넘어 정치, 안보 기구로서 확대할 의지가 있으나 중국은 가능하면 경제협력에 초점을 맞추려는 것으로 전해졌음.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